書院建築의 坐向 決定과 風水的 要因에 關한 硏究

박 정 해*
(한양대 대학원 박사과정)

주제어 : 書院, 風水, 坐向, 地理新法, 文筆峰

1. 서론

宿水寺라는 절터에 세운 白雲洞 書院은 산수 경치가 뛰어난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곳에 立地하고 있다. 자연에 은둔하며 심신을 수양하고자 하였던 유학자들의 풍수적인 입지 선정 방법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風水는 자연지형을 바탕으로 陰陽五行說과 결합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산의 형세를 五行으로 분류하고 방위를 다양한 논리를 바탕으로 오행설과 결부시켜 각 방위마다의 특징을 규정하고 길흉화복을 논하게 되는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인간 생활에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風水는 조선시대의 궁중을 비롯한 양반사회에 절대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곳곳으로 파고들게 되는데 서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때문에 書院은 風水를 바탕으로 조영되고 배치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풍수지리설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脈을 같이 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이론이나 현실적인 적용에 대한 그 동안의 평가에는 전체적으로 肯定과 否定의 양면성이 존재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 건축물은 풍수에 바탕을 두고 철저하게 터 잡기를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서원이 위치한 지역을 살펴보면 산 좋고 물 좋은 지형을 바탕으로 俗世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학문에 매진할 수 있는 곳에 立地를 정하고 있다. 자연과 하나 되어 자연과 동화되고자 하는 天人合一의 정신이 그대로 서원 건축에 녹아 들어가 있다. 때문에 그들의 터 잡기는 철저하게 形勢論을 바탕으로 매우 뛰어난 吉地에 입지코자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理氣論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풍수적인 理想鄕을 건설고자 하였기 때문에 坐向의 결정도 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본 논문에는 첫째, 辛未存置 47개 서원 가운데 남한에 위치한 36개 서원중 祠宇 등을 제외한 21개의 서원[2]을 대상으로 풍수이론에

* 교신저자, 이메일: azzy777@hanmail.net

1)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23쪽, 1984.

입각하여 진행된 현장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形勢的 관점에서 主山의 入首龍이 坐向 결정에 미친 영향과 함께, 案山은 어떻게 坐向 결정에 影響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셋째, 理氣的 관점에서 조선시대 地官 선발시험 중에 하나였던 胡舜申의『地理新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검토한다.

坐向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사용하는 羅經佩鐵을 사용하여 入首龍[3]과 坐向은 4층 地盤正針으로 측정하였으며, 得水와 水口處[4]는 8층 天盤縫針으로 측정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측정 방법이나 좌향 등과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으나, 坐向에 대한 文獻的인 資料가 전무한 상태에서 선택할 다른 代案이 없기 때문이다.

2. 書院建築의 形勢的 坐向 決定論

龍이란 산의 흐름, 즉 산줄기를 뜻하며 더 자세하게는 우주 生氣가 힘차게 躍動하여 山脈을 타고 흐르는 것을 말한다. 風水를 거론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龍이다.[5] 때문에 趙廷棟은『地理五訣』에서 "氣脈은 부귀빈천을 통괄한다.[6]"고 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氣는 宇宙의 本源으로 어느 곳에나 없는 곳이 없고 不生不滅하여 無始無終에 不變形質의 한 우주의 기운[7]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다루어 져야 한다.

서원 건축의 입지는 풍수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形勢論에 근거하여 선택하고 있다. 특히 主山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主山에서 穴場으로 연결된 龍에 대한 중요성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좌향의 결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形勢的 관점의 좌향법으로는 主山에서 뻗어내려온 入首龍의 行龍에 順應하는 入首龍順應坐向法과 案山重視形坐向法, 그리고 入首龍順應形과 案山重視形이 동시에 적용되는 混合形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비록 案山重視形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案山만을 向해서 지나치게 入首龍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坐向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었다.

서원건축물은 대부분 이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배치되는데, 講堂과 東齋·西齋와 같은 齋舍間의 배치관계는 齋舍가 講堂 前面에 위치하는 前齋後堂이 가장 많고 後代에 오면 前

2) 21개의 서원을 살펴보면,

지 역	서 원 명	주 배향자
경기도	용연서원	이덕형
	파산서원	성수침
	덕봉서원	오두인
	심곡서원	조광조
	우저서원	조 헌
강원도	창절서원	사육신
	충렬서원	홍명구
충청도	돈암서원	김장생
	노강서원	윤 황
전라도	무성서원	최치원
	필암서원	김인후
경상도	도산서원	이 황
	소수서원	안 향
	옥산서원	이언적
	서악서원	설 총
	도동서원	김굉필
	옥동서원	황 희
	홍암서원	송준길
	남계서원	정여창
	병산서원	유성룡
	금오서원	길 재

3) 入首 1節龍은 祠堂 담장 밖에서 4층 地盤正針으로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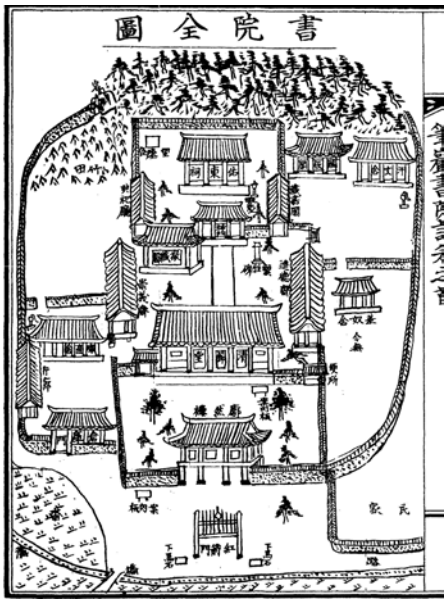
4) 內破 優先原則에 따라 內破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5) 박상구,「조선시대 서원건축 터잡기 및 건물재치의 풍수지리적 해석」,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17쪽, 2007.

6)『地理五訣』「地理總論」: 一曰氣脈爲富貴貧賤之綱

7) 박봉주,『한국풍수이론의 정립』, 관음출판사, 34쪽, 2002.

堂後齋의 배치를 한 것도 나타난다. 이들 건축물은 모두 원칙적으로 南北 子午線을 주축으로 한 坐向을 하고 있는데, 이는 絶對向을 그리 중요시하지 않으며 배치된 서원과 큰 차이점을 갖는다.[8]



<그림 1> 필암 서원도[9]

書院이 등장하는 16세기의 인물인 栢谷 鄭崑壽(1538-1602)의『西原鄭氏家塾記』에는 당시의 坐向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 어느 쪽으로 자리 잡았는가를 不問하고 앞을 남쪽, 뒤를 북쪽, 왼쪽을 동쪽, 오른쪽을 서쪽으로 한 방식이다.[10]

이것은 실제적인 子午線 방위가 아닌 상대적 개념의 방위로 당시 서원 건축에 주로 활용 된 相對的 方位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서원 건축은 향교건축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것은 鄕校 건축물은 官 주도적이고 배향대상이 先聖 즉 孔子와 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坐向 설정에[11]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서원건축의 坐向 선택은 훨씬 자유로운 측면이 강했다. 이와 같이 書院의 좌향 배치가 상대적으로 鄕校에 비해 자유로울 수 있었던 배경은 배향하는 인물이 先師나 先賢이었기 때문이다.

3. 坐向의 決定

3.1 主山順應形의 坐向 法

主山에서 穴處에 연결된 入首龍은 사람으로 치면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坐向을 정할 때는 입수룡의 흐름에 順應하는 坐向 선택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坐向 選擇法이다. 따라서 書院의 坐向도 入首龍의 흐름방향에 順應하는 形勢로 坐向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入首龍에 순응하는 坐向選擇法을 主山順應形이라 한다면, 이러한 형식에 속하는 서원으로는 파산서원과 우저서원, 무성서원, 심곡서원, 흥암서원, 필암서원 등 6개 서원이 있다. 入首龍의 흐름과 미세하게 차이[12]를 보이며 坐向을 정한 서원으로는 용연서원과 충렬서원, 노강서원, 병산서원, 옥동서원, 소수서원, 남계서원 등 7개의 서원이 있다.

그 중에 玉洞書院은 <그림 2>와 같이 入

8) 이상해 글 안장헌 사진,「서원」, 열화당, 352쪽, 1998.

9) 중앙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아카아브,「筆巖書院志」

10) 鄭崑壽, 韓國歷代文集叢書, 「栢谷先生文集, 西原鄭氏家塾記」, 경인문화사, 110쪽,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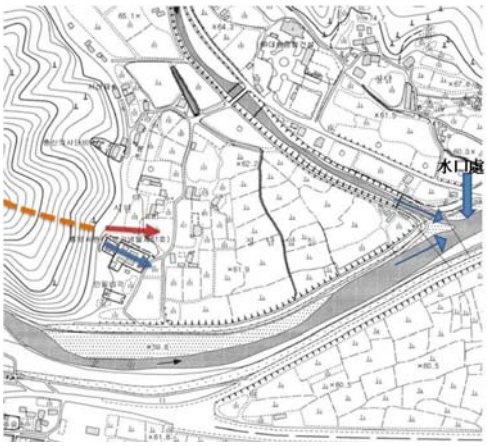
11) 이상규,「德川書院의 造營과 變遷에 關한 硏究」,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24쪽, 1998.

12) 佩鐵의 한 눈금은 15씩 인데 같은 범위 안의 좌향은 같은 좌향으로 본다. 한 눈금 차이가 난다는 것은 최대 30이고 최하의 경우에는 같은 눈금 안에서의 15보다도 작을 수도 있다. 때문에 좌향을 결정할 때에는 입수룡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로 한 눈금 범위 안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것도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표 1] 入首龍과 坐向의 比較表

書院 名	主山 形狀	案山 形狀	入首龍	坐 向	選擇 坐向法
용연서원	武曲星	貪狼星(文筆峰)	戌 入首龍	辛坐乙向	案山 重視形
파산서원	巨門星	武曲星	癸 入首龍	癸坐丁向	主山 順應形
우저서원	武曲星	巨門星	申 入首龍	申坐寅向	主山 順應形
창절서원	武曲星	貪狼星(文筆峰)	寅 入首龍	寅坐申向	主·案山 混合形
충렬서원	武曲星	武曲星	亥 入首龍	乾坐巽向	案山 重視形
돈암서원	武曲星	貪狼星(文筆峰)	酉 入首龍	酉坐卯向	主·案山 混合形
노강서원	武曲星	武曲星	壬 入首龍	子坐午向	案山 重視形
도산서원	貪狼星	貪狼星(文筆峰)	癸 入首龍	癸坐丁向	主·案山 混合形
병산서원	武曲星	貪狼星(文筆峰)	亥 入首龍	壬坐丙向	案山 重視形
무성서원	武曲星	武曲星	亥 入首龍	亥坐巳向	主山 順應形
덕봉서원	武曲星	貪狼星(文筆峰)	乾 入首龍	乾坐巽向	主·案山 混合形
서악서원	武曲星	貪狼星(文筆峰)	酉 入首龍	酉坐卯向	主·案山 混合形
옥산서원	武曲星	貪狼星(文筆峰)	卯 入首龍	卯坐酉向	主·案山 混合形
도동서원	武曲星	貪狼星(文筆峰)	坤 入首龍	坤坐艮向	主·案山 混合形
금오서원	武曲星	貪狼星(文筆峰)	壬 入首龍	壬坐丙向	主·案山 混合形
흥암서원	貪狼星	武曲星	戌 入首龍	戌座辰向	主山 順應形
옥동서원	武曲星	貪狼星(文筆峰)	未 入首龍	申坐寅向	案山 重視形
소수서원	武曲星	武曲星	亥 入首龍	癸坐丁向	案山 重視形
필암서원	武曲星	巨文星	子 入首龍	子坐午向	主山 順應形
남계서원	巨文星	貪狼星(文筆峰)	卯 入首龍	甲坐庚向	案山 重視形
심곡서원	武曲星	貪狼星	卯 入首龍	卯坐酉向	主山 順應形

首龍의 흐름방향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다.[13] 그 이유는 서원의 明堂水가 合水하여 빠져 나가게 되는데, 정면에서 곧장 빠져나가는 水口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自救策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서원은 入首龍의 진행방향에 順應하는 坐向을 선택하고 있다.



<그림 2> 옥동서원의 입수룡과 좌향

이것은 자연적인 요소와 충분히 동화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억지로 과도하게 入首龍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어색한 坐向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입지 선정에서 보여준 자연과 동화되려는 노력의 모습이 좌향 선택에 있어서도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풍수이론에 의하면 무엇보다 玄武는 主山답게 주위의 뭇 산에 비하여 출중해야 하고 기품이 있고 위엄이 넘치면 좋다. 그러면서도 有情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14]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요 건축물의 主山과 案山의 형상으로는 특히 貪狼과 巨門 그리고 武曲星의 형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13) 입수룡과 좌향이 두 눈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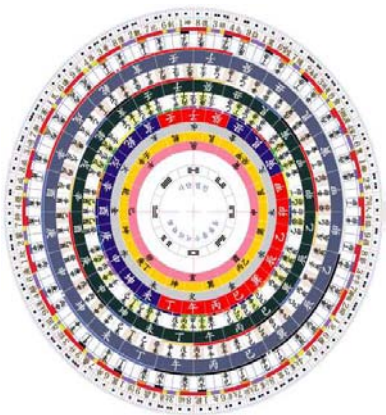
14) 최창조,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민음사. 25쪽, 1992.

그중에서 대부분의 書院은 主山의 형상으로 武曲星을 선호하고 있고, 案山의 형상으로는 흔히 文筆峰이라 부르는 貪狼 木星體를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서원으로는 용연서원과 덕봉서원, 돈암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창절서원, 도동서원, 남계서원, 심곡서원, 서악서원, 금오서원 등 12개 서원이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풍수적인 요소를 적극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3.2 案山重視形의 坐向 法

案山은 主山과 對比되는 山으로 앞쪽에 위치하여 視覺的인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書院 건축물의 坐向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하게 되는데, 방향의 앞과 뒤를 구성하는 요소로서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案山의 형상을 선택하는 변수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먼저 入首龍의 흐름에서 지나치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三吉星에 해당하는 貪狼 木星體와 武曲 金星體 그리고 巨門 土星體의 형상이어야 한다.



<그림 3 나경패철의 모습>
(출처: www.poongsoojiri.co.kr)

나경패철로 측정하였을 경우에 入首龍과 坐向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형상의 案山을 선택한 경우를 案山重視形이라 한다면, 용연서원과 충렬서원, 노강서원, 옥동서원, 병

<그림 4> 貪狼星(文筆峰)(충남 공주시)

<그림 5> 巨文星(경기도 의왕시)

<그림 6> 武曲星(경기도 가평군)

산서원, 소수서원, 남계서원 등이 해당된다.

그 중에서도 文筆峰을 案山으로 향한 서원을 살펴보면, 용연서원과 창절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덕봉서원, 옥산서원, 도동서원, 옥동서원, 남계서원, 심곡서원, 서악서원, 금오서원, 돈암서원 등이 있다. 학문하는 공간인 書院의 성격에 附合하는 산위가 뾰족한 형상인 文筆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文筆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부분의 서원들은 꼭 文筆峰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형상으로 案山을 삼고자 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서원도 文筆峰 案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병산서원의 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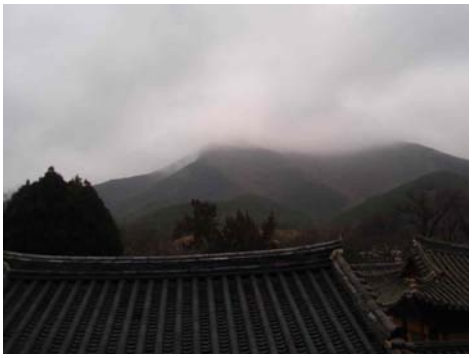
특히 屛山書院은 앞쪽의 험하고 높은 屛山을 가리기 위해 晩對樓를 건축하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文筆峰을 案山으로 취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문필봉 안산을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 晩對樓를 벽체가 없이 건축하여 시야의 전면에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文筆峰 사랑은 中國도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楊布生과 彭定國이 編著한『中國書院與傳統文化』에 따르면 “書院과 같이 학문을 연구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특별히 案山을 중시하는 입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形狀을 살펴보면, 筆架, 三合, 三峰, 天馬, 文筆, 文峰, 橫琴, 玉帶등으로 모두 좋아하는 형상이다. 이러한 형상은 문인 학사들이 사용하는 용구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물품이다.”[15]라고 하여 학자들의 일상과 바람이 반영된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곁들여서 산과 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陰陽의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生氣를 받을 수 있다는 풍수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원칙이다.

3.3 主·案山混合形 坐向 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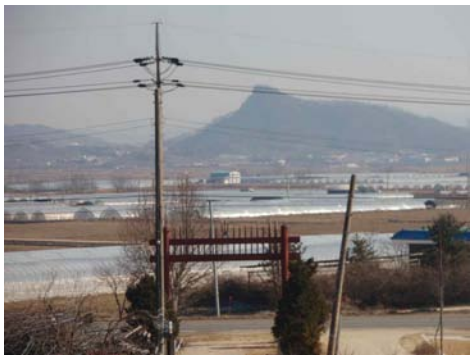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坐向을 정할 때 入首龍의 흐름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특히 아름다운 案山을 향해서 坐向을 정하게 된다. 그렇지만 入首龍의 흐름에 順應하면서도 특히 아름다운 案山을 선택한 경우를 主·案山 混合形이라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서원은 굉장히 形勢的인 조건을 잘 갖춘 서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文筆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서원건축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형세를 갖췄다고 할 것인데, 창절서원과 도산서원, 덕봉서원, 옥산서원, 도동서원, 돈암서원, 금오서원, 서악서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8> 도산서원 안산(文筆峰)

15) 楊布生 彭定國 編著,「中國書院與傳統文化」, 中國湖南敎育出版社, 178쪽, 1992.



<그림 9> 옥산서원 안산(文筆峰)



<그림 10> 덕봉서원 안산(文筆峰)

4. 向法論에 의한 坐向 選擇

하나의 건축 환경이 특정한 坐向을 갖기까지 검토되는 向은 무수한 方向을 가질 수 있으나 時間性과 상상적 의미가 내포되는 絶對向과 地勢, 視界, 實存性을 가지는 相對向으로 나눌 수 있는데,[16] 그 중에서도 相對向이 강조되며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된다. 坐向의 중요성에 대해 풍수의 최고경전인 『靑烏經』에는,

> 坐向으로 陰陽을 정함에 결코 사리에 어그러지지 말라. 터럭 끝만 한 차이라도 생기면 그 어그러짐이 千里나 되리라.[17]

하여 좌향의 결정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向法論에서는 陰陽과 五行의 形而上學的 論理構造를 통하여 좋고 나쁨을 해석한다. 그러나 向法論에서 각 方位에 대한 陰陽五行의 配分은 일정하지 않고 여럿이다.[18] 그리고 시대 상황에 따라 유행하는 向法이 있는데 당시에는 胡舜申의 『地理新法』이 가장 유행하고 있던 때이다. 조선 초기 河崙(1347-1416)에 의해 新都岸이 都邑地로 불가함을 주장하는데 활용된『地理新法』은 그 후 지관 선발시험 과목으로 선정되어 조선시대를 풍미한 대표적인 向法으로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書院의 坐向 결정은 胡舜申의『地理新法』[19]에 의해 검토되고 결정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기에 領議政을 지낸 象村 申欽(1566-1628)의 문집인『象村集』「風水家說」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리에 대해 오로지 胡舜申의 법만을 사용하고 있다."[20]라고 하는 구절로 볼 때 서원도『地理新法』에 의해 坐向이 결정되었을 것이라는 예상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게 된다.『地理新法』은 九星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向法으로 入首龍을 大五行으로 분류하고 해당입지의 得水處와 水口處를 九星에 配屬하여 吉凶을 판단하는 向法이다. 따라서 胡舜申

16) 張聖浚,「風水地理의 局面이 갖는 建築的 想像力에 관한 考察」, 대한건축학회지, 22권, 85호, 20-21쪽, 1978.

17) 최창조 역,『청오경·금낭경』, 민음사, 35-36쪽, 1993. : 向定陰陽 切莫乖戾 差以毫釐 繆以千里.

18) 玄重英 朴贊龍, 「朝鮮時代 傳統住宅 風水의 坐向,-良洞마을에 대한 事例 硏究」, 韓國庭園學會誌16(3), 57쪽, 1998.

19) 地理新法은 胡舜申의 『地理新法』이라는 책자에 등장하는 向法으로, 경우에 따라 向法書로 때로는 向法論으로 공용되고 있다.

20) 申欽,『象村集,』「風水家說」, 한국고전종합db : 我國地術專用胡舜申

의『地理新法』은 해당입지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入首龍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즉 理氣論의 一種인『地理新法』도 形勢論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入首龍에 의지해서 向法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形勢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形勢를 바탕으로『地理新法』의 이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 地理는 形勢를 근본으로 한다. 形勢가 있고 나서야 이 법을 시행할 수 있다. 形勢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사용하면 때로는 그 效驗이 나타나지 않는다. 人間이 건립하고 세우는 것은 모두 生氣를 타게 해야 되는데 形勢가 없으면 生氣가 모이지 않기 때문이다.[21]

라고 하며 形勢論이 風水의 근본임을 주장하고 있다. 즉, 向法論을 근거로 하는 坐向의 선택은 形勢風水의 補助的인 意味를 가진다. 때문에 대부분의 書院은 形勢를 바탕으로 坐向을 選擇하였으나, 部分的으로『地理新法』에 의해 坐向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地理新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入首龍을 基準으로 坐向과 得水, 水口의 大五行과 胞胎法, 九星의 關係性을 따져 吉凶을 살피게 되는데, 먼저『地理新法』으로 분석하기 위한 가장 필수사항을 表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大五行에 따른 분류[22]

水	子 寅 甲 辰 巽 申 辛 戌
火	乙 丙 午 壬
木	艮 卯 巳
金	丁 酉 乾 亥
土	未 坤 庚 癸 丑

서원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陶山書院을 분석해 보면, 入首龍은 左旋癸龍으로 大五行의 土에 해당되므로 <표 4>의 土局에서 胞胎法과 九星을 살펴보면, 癸는 胞胎法으로는 臨官에 해당되고, 九星은 武曲에 해당되어 吉한 龍임을 알 수 있다.

坐向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入首龍과 坐向을

[표 3] 九星과 胞胎法 및 그 吉凶關係 表-右旋陰局表

九星	貪狼		文曲		武曲		右弼	巨門	左輔	廉貞		破軍		祿存
胞胎	養	長生	沐浴	冠帶	臨官	帝旺	衰			病	死	墓	胞	胎
金山	辰巽	巳丙	午丁	未坤	申庚	酉	辛	戌	乾	亥壬	子癸	丑艮	寅甲	卯乙
水土	未坤	申庚	酉辛	戌乾	亥壬	子	癸	丑	艮	寅甲	卯乙	辰巽	巳丙	午丁
木山	戌乾	亥壬	子癸	丑艮	寅甲	卯	乙	辰	巽	巳丙	午丁	未坤	申庚	酉辛
火山	丑艮	寅甲	卯乙	辰巽	巳丙	午	丁	未	坤	申庚	酉辛	戌乾	亥壬	子癸
吉凶	吉	吉	凶	凶	吉	吉	吉	吉	吉	凶	凶	凶	凶	凶

[표 4] 九星과 胞胎法 및 그 吉凶關係 表-左旋陰局表

九星	貪狼		文曲		武曲		右弼	巨門	左輔	廉貞		破軍		祿存
胞胎	養	長生	沐浴	冠帶	臨官	帝旺	衰			病	死	墓	胞	胎
金山	艮丑	癸子	壬亥	乾戌	辛酉	庚	申	坤	未	丁午	丙巳	巽辰	乙卯	甲寅
水土	巽辰	乙卯	甲寅	艮丑	癸子	壬	亥	乾	戌	辛酉	庚申	坤未	丁午	丙巳
木山	坤未	丁午	丙巳	巽辰	乙卯	甲	寅	艮	丑	癸子	壬亥	乾戌	辛酉	庚申
火山	乾戌	辛酉	庚申	坤未	丁午	丙	巳	巽	辰	乙卯	甲寅	艮丑	癸子	壬亥
吉凶	吉	吉	凶	凶	吉	吉	吉	吉	吉	凶	凶	凶	凶	凶

21) 胡舜申, 『地理新法』, 卷上, 形勢論
地以形勢爲本 有形勢然後 此法可施 無形勢而用之 往往其效不應.人所建立皆以乘生氣 無形勢則生氣不聚故也.

22) 胡舜申 원저, 김두규 역, 『地理新法』, 비봉출판사, 336쪽, 2005.

大五行으로 살핀 후 五行의 相生相剋 관계를 따진다.

내가 이기는 것(我克者)을 얻음이 으뜸이고,

내가 낳은 자손은 그 다음이고,

부모 형제가 그 다음이고,

다만 나를 이기는 것(克我者)은 흉하다고 하였다.[23]

이 논리를 바탕으로 坐向을 분석해 보면, 도산서원의 坐向은 癸坐丁向이고 入首龍은 左旋으로 癸龍이다. 먼저 坐向의 癸와 丁을 大五行으로 살펴보면 癸는 土에 해당되고 丁은 金에 해당한다.

따라서 入首龍 土(癸龍)와 坐향의 土(癸坐)는 같은 土로서 兄弟에 해당되고, 向(丁向)은 金으로 土生金하여 子孫에 해당되니 吉한 構成이다.

九星 가운데 貪狼은 胞胎法에서 養과 長生의 두 자리에 居하고,

武曲은 臨官과 帝王의 두 자리에 居한다.

그러므로 물(즉, 貪狼水와 武曲水)은 흘러들어 오는 것이 좋다.

만약 貪狼水와 武曲水가 흘러 나가는 방향에 있다면, 生하는 기운과 旺盛한 기운을 부딪쳐서 없어지게 할 것이다.

九星 가운데,

文曲은 포태법상 沐浴과 冠帶 두 자리에 居하고,

廉貞은 病과 死 두 자리에 居하고,

祿存은 胎와 絶 두 단계에 居한다.

그러므로

文曲水, 廉貞水, 祿存水는 마땅히 그 흘러나가는 방향(즉 水口)에 있어야 한다.

만약 文曲水, 廉貞水 그리고 祿存水가 들어오는 방향(得水 방향)에 있으면,

배반의 氣와 사나운 氣가 따라온다.

九星 가운데,

巨門은 胞胎法上 衰에 居하고,

左輔, 右弼은 巨門을 좌우에서 보좌한다.

이것은 만물이 출입하는 문이다.

그러므로 巨門水는 물이 흘러들어 오는 방향(得水處)과 가는 방향(水口處) 어느 곳에 있어도 좋다.

九星 가운데,

破軍은 포태법상 墓에 居하는데,

이는 기를 갈무리하는 땅이다.

그러므로,

破軍水는 得水와 水口방위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안 된다.[24]

胡舜申 水法理論의 核心은 물이 吉方에서 와야 하고 凶方으로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도산서원에 대한 호순신의 水法을 적용하여 보면 入首龍은 左旋으로 癸龍이고 艮得水에 申 破이다. 따라서 入首龍은 癸龍으로 大五行은 土에 해당된다. <표 4>의 土局에서 찾아보면 艮方은 胞胎法으로는 冠帶에 해당되고 九星은 文曲에 해당되며, 申 水口는 胞胎法으로는 死에 해당되고 九星은 廉貞에 해당되어 "吉한 方位에서 得水하고 凶한 方位로 흘러나가야 된다."는『地理新法』의 요구사항에 附合하지 않고 있다.

23) 胡舜申 원저, 김두규 역, 앞의 책, 218쪽.

24) 胡舜申 원저, 김두규 역, 같은 책, 61-63쪽
貪居養生 武居官旺 故水欲 其來 若去 則衝敗生旺氣矣.
文居沐冠 廉居病死 祿居胎絶 故水欲其去 若來 則乖厲之氣隨至矣.
巨居衰 輔弼左之 此物出入之門 故其水來去皆宜.
破居墓 此氣藏畜之地 故其水不宜來去 其理皆可考如此.

[표 5] 書院別 坐向 現況表

書院 名	入首龍	坐 向	得水	水口
용연서원	戌	辛坐乙向	丙	丑
파산서원	癸	癸坐丁向	巳	庚
우저서원	申	申坐寅向	卯	癸
창절서원	寅	寅坐申向	亥	丁
충렬서원	亥	乾坐巽向	庚	寅
무성서원	亥	亥坐巳向	申庚	甲
돈암서원	酉	酉坐卯向	申	癸
노강서원	壬	子坐午向	甲	申
도산서원	癸	癸坐丁向	艮	申
병산서원	亥	壬坐丙向	甲	未
덕봉서원	乾	乾坐巽向	申	卯
서악서원	酉	酉坐卯向	申	癸
옥산서원	卯	卯坐酉向	壬	丁
도동서원	坤	坤坐艮向	丙	亥
금오서원	壬	壬坐丙向	未	卯
흥암서원	戌	戌座辰向	亥	丙
옥동서원	未	申坐寅向	丙	丑
소수서원	亥	癸坐丁向	艮	丁
필암서원	子	子坐午向	庚	巽
남계서원	卯	甲坐庚向	丁	戌
심곡서원	卯	卯坐酉向	丑	丁

이와 같이 坐向과 得水, 水口등을 살펴보았는데, 모두가 地理新法의 理論에 附合하지 않고 있다. 도산서원의 예와 같이 분석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좋은 방향에서 득수하고 나쁜 방향으로 빠져 나가야 한다는『地理新法』의 핵심이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당시 서원건축이『地理新法』의해 좌향이 결정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지역적인 검토를 해보면 경기지역의 5개 서원중에서 용연서원과 파산서원, 우저서원, 심곡서원 등 4개 서원이 지리신법에 의해 좌향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충청도의 돈암서원과 노강서원 중에서 노강서원은『地理新法』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에 위치한 창절서원과 충렬서원은 지리신법에 부합하고 있다.

[표 6] 서원별『地理新法』적용여부 비교*범례: O는 적용, X는 비적용으로 구분

書院 名	入首龍	坐			向			得水			水口			附合
	大五行	胞胎	九星	吉凶	胞胎	九星	吉凶	胞胎	九星	吉凶	胞胎	九星	吉凶	與否
龍淵書院	水	浴	文曲	凶	死	廉貞	凶	胞	祿存	凶	衰	巨門	吉	x
波山書院	土	官	武曲	吉	胞	破軍	凶	胎	祿存	凶	死	廉貞	凶	x
牛渚書院	水	生	貪狼	吉	病	廉貞	凶	死	廉貞	凶	衰	右弼	凶	x
彰節書院	水	病	廉貞	凶	生	貪狼	吉	衰	右弼	吉	胎	祿存	吉	o
忠烈書院	金	衰	左輔	吉	養	貪狼	吉	官	武曲	吉	胎	祿存	凶	o
武城書院	金	病	廉貞	凶	生	貪狼	吉	官	武曲	吉	胎	祿存	凶	o
遯巖書院	金	浴	文曲	凶	胎	祿存	凶	官	武曲	吉	死	廉貞	凶	o
魯岡書院	火	胞	破軍	凶	官	武曲	吉	死	廉貞	凶	浴	文曲	凶	x
陶山書院	土	官	武曲	吉	胞	破軍	凶	帶	文曲	凶	死	廉貞	凶	x
屛山書院	金	病	廉貞	凶	生	貪狼	吉	胎	破軍	凶	帶	文曲	凶	x
德峰書院	金	衰	左輔	吉	養	貪狼	吉	官	武曲	吉	胎	祿存	凶	o
西岳書院	金	旺	武曲	吉	胎	祿存	凶	官	武曲	吉	死	廉貞	凶	o
玉山書院	木	官	武曲	吉	胞	破軍	凶	死	廉貞	凶	生	貪狼	吉	x
道東書院	土	養	貪狼	吉	衰	左輔	吉	胞	祿存	凶	官	武曲	吉	x
錦烏書院	火	胞	祿存	凶	官	武曲	吉	衰	巨門	吉	浴	文曲	凶	o
興巖書院	水	帶	文曲	凶	墓	破軍	凶	官	武曲	吉	胞	破軍	凶	o
玉洞書院	土	生	貪狼	吉	病	廉貞	凶	胞	破軍	凶	衰	巨門	吉	x
紹修書院	金	死	廉貞	凶	浴	文曲	凶	墓	破軍	凶	浴	文曲	凶	x
筆巖書院	水	旺	武曲	吉	胎	祿存	凶	胞	破軍	凶	墓	破軍	凶	x
藍溪書院	木	官	武曲	吉	胎	祿存	凶	死	廉貞	凶	養	貪狼	吉	x
深谷書院	木	旺	武曲	길	胎	祿存	凶	帶	文曲	凶	死	廉貞	凶	x

[표 7] 지역별『地理新法』분석표

지역	서원명	적용여부
경기도	용연서원	x
	파산서원	x
	우저서원	x
	덕봉서원	o
	심곡서원	x
강원도	창절서원	o
	충렬서원	o
충청도	돈암서원	o
	노강서원	x
전라도	무성서원	o
	필암서원	x
경상도	도산서원	x
	병산서원	x
	서악서원	o
	옥산서원	x
	도동서원	x
	금오서원	o
	흥암서원	o
	옥동서원	x
	소수서원	x
	남계서원	x

[표 8] 세기별『地理新法』분석표

세기별	서원명	적용여부
16세기	소수서원	x
	도산서원	x
	서악서원	o
	파산서원	x
	금오서원	o
17세기	용연서원	x
	우저서원	x
	덕봉서원	o
	심곡서원	x
	창절서원	o
	충렬서원	o
	돈암서원	o
	노강서원	x
	무성서원	o
	필암서원	x
	병산서원	x
	옥산서원	x
	도동서원	x
	남계서원	x
18세기	흥암서원	o
	옥동서원	x

전라도 지역의 무성서원과 필암서원 중에서 필암서원은 부합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의 조사대상 11개 서원중에서『地理新法』이 적용된 서원은 5개 서원이다. 반면에 경상도 지역은 조사대상 10개 서원중에서 7개의 서원이 지리신법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向法 적용에 차이점이 있었던 것으로 이와 같은 차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형세적인 차이와 지역성 그리고 정치적인 차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경기도와 충청도는 주로 畿湖學派로서 西人들의 중심지였다면, 경상도 지역은 嶺南學派를 중심으로 한 南人들의 본 고장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시대적[25]으로 구분해 보면, 16세기의 서원인 소수서원(1542)과 도산서원(1574), 서악서원(1561), 파산서원(1568), 금오서원(1570)등 5개 서원중에서 금오서원과 서악서원은『地理新法』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용연서원 등 3개 서원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7세기의 서원은 조사대상 총 21개 서원중에서 14개 서원이 해당되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덕봉서원과 창절서원, 충렬서원, 돈암서원, 무성서원 등 5곳이 적용되었고 9개 서원은『地理新法』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18세기에 건설 된 서원은 두 곳으로 흥암서원과 옥동서원이다. 그중에 흥암서원은 적용되고 옥동서원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地理新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분석해 보면 절대적으로『地理新法』이 서원 건축에 적용되었다고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으로

25) 시대적 분류는 설립 시기는 앞선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옮겨서 건축한 경우에는 옮겨서 건축한 시기로 시대를 분류하였다.

는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지역 등의 서원은 비교적『地理新法』이 적용된 측면이 강하다. 반면에 기호학파의 본고장인 경기도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비교적 수도권에 가깝고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현실적이며 다양성을 가진[26]畿湖學派의 學風과 관련성이 있다. 반면에 嶺南學派들이 주로 활동한 경상도 지역에 위치한 서원들은『地理新法』이 적용된 흔적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朱子의『山陵議狀』은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의 儒學風水에 깊은 영향을 미쳐 形勢風水의 핵심을 이루게 되는데, 傳統性이 강한 安東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은 形勢論이 강한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27]

[표 9] 배향인물 분석표

지역	서원 명	주배향	該當學派
경기도	용연서원	李德馨	嶺南學派
	파산서원	成 渾	畿湖學派
	우저서원	趙 憲	畿湖學派
	덕봉서원	吳定邦	畿湖學派
강원	심곡서원	趙光祖	畿湖學派
	창절서원	死六臣	-
	충렬서원	洪命耆	畿湖學派
충청	돈암서원	金長生	畿湖學派
	노강서원	尹 拯	畿湖學派
전라	무성서원	崔致遠	-
	필암서원	金麟厚	畿湖學派
경상	도산서원	李 滉	嶺南學派
	병산서원	柳成龍	嶺南學派
	서악서원	金庾信	-
	옥산서원	李彦適	嶺南學派
	도동서원	金宏弼	嶺南學派
	금오서원	吉 再	嶺南學派
	홍암서원	宋浚吉	畿湖學派
	옥동서원	黃 喜	-
	소수서원	安 珦	-
	남계서원	鄭汝昌	嶺南學派

고 해석하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표 9>와 같이 21개의 서원중에 기호학파 서원은 9개이고 영남학파서원은 7개이다. 그리고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초기의 인물로 영남학파와 기호학파로 분류할 수 없는 인물을 배향한 서원은 5개이다. 이들 서원도 지역적인 특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기호학파 서원은 주로 경기도와 충청도지역에 위치한 반면에 영남학파 서원은 주로 경상도 지역에 위치한다. 다만 기호학파와 영남학파의 상대편 한복판에 건설된 용연서원과 홍암서원은 상당히 흥미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두 서원 모두 형세풍수에 충실한 터 잡기를 하고 있다. 파주에 위치한 용연서원은 武曲星 주산에 文筆峰을 안산으로 案山重視形으로 좌향을 결정하고 있다. 반면에 홍암서원은 영남학파의 한복판인 상주지역에 위치하며 貪狼 木星體의 주산에 武曲星 안산으로 主山順應形으로 좌향을 정하고 있다. 또한 용연서원은 호순신의 『地理新法』에 부합하지 않은 반면에 홍암서원은 부합하고 있다.

5. 결론

風水는 自然地形을 바탕으로 陰陽五行說과 결합되면서 飛躍的인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산의 형세를 五行으로 분류하고 方位를 다양한 논리를 바탕으로 五行說과 결부시켜 각 방위마다의 특징을 규정하고 吉凶禍福을 논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리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인간 생활에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왔다. 그 결과 풍수는 조선시대의 궁중을 비롯한 양반사회에 절대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스며들게 되는데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26) 한국사상사연구회,『조선 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224-225쪽, 2004. 참조.

27) 배상열, 「山陵議狀의 風水思想 硏究」,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3-19쪽, 2004.

교육기관인 書院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風水에서 터를 잡고 向을 정하는 방법에는 形勢的 방법과 向法的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형세적 방법에는 主山順應形과 案山重視形 그리고 主·案山混合形이 있다. 먼저 主山順應形의 서원으로는 파산서원과 우저서원, 돈암서원, 무성서원, 홍암서원, 필암서원 등 6개의 서원이 있다. 이러한 서원의 좌향 선택에는 자연적인 요소와 충분히 同化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억지로 과도하게 入首龍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어색한 坐向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立地 選定에서 보여준 자연과 同和되려는 노력의 모습이 坐向 선택에 있어서도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入首龍의 흐름에 順應하지 않더라도 左右로 한 눈금 범위 안에서 아름다운 형상의 案山을 선택한 案山重視形의 서원으로는 용연서원과 충렬서원, 노강서원, 병산서원, 옥동서원, 소수서원, 남계서원 등 7개의 서원이 있다. 따라서 案山重視形의 坐向 선택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入首龍의 흐름에 順應하면서도 특히 아름다운 案山을 선택한 主·案山 混合形으로는 창절서원과 도산서원, 덕봉서원, 서악서원, 옥산서원, 도동서원, 금오서원, 심곡서원 등 8개 서원이 있는데 이들 서원은 形勢的인 측면에서 가장 완벽한 지형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서원건축에 있어서 文筆峰 案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案山을 단순히 앞에 위치한 하나의 砂格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물길과 바람 길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과 함께 前面의 視野를 지배하는 중요한 環境要素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가장 流行한 胡舜申의『地理新法』은 조사대상 21개 서원중에서 13개서원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충청지역과 강원지역, 전라도지역 등이 상대적으로 적용도가 높은 반면에 경기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의 서원은 상대적으로 지리신법에 의한 좌향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向法에 의한 坐向의 결정은 지역적으로나 시대적으로도 어떤 특별한 공통점을 찾기 어렵고, 적용 된 흔적 또한 微弱하다.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地理新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교적 보수적이고 전통성이 강한 경상도 지역은 朱子의『山陵議狀』에서 나타난 형세 풍수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 생각된다. 따라서 向法에 의한 坐向의 선택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形勢的 坐向 선택의 補助的인 의미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서원건축의 터 잡기는 形勢的인 기준으로 선정되었고 坐向의 결정에 있어서도 지역과 정치적 요인 그리고 시대적인 요인 등과 관계없이 形勢的인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形勢的으로 坐向을 결정할 때 形勢와 附合하면 활용되어졌지만 附合하지 않으면 활용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反證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朱子學에 심취해 있던 朝鮮士林들의 의식 속에는 形勢風水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 활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趙廷棟,『地理五訣』, 福省集新堂藏板,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7.
2. 이상해 글 안장헌 사진,『서원』, 열화당, 1998.
3. 胡舜申 원저, 김두규 역,『地理新法』, 奎章閣本, 비봉출판사, 2005.
4. 정경연,『정통풍수지리』, 평단문화사, 2002.
5. 최창조,『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6. 최창조,『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민음사. 1992.
7. 최창조 역,『청오경·금낭경』, 奎章閣本, 민음사, 1993.
8. 정순목,『중국서원제도』,문음사, 1990.
9. 김두규,『우리땅 우리풍수』, 동학사, 1998.
10. 박봉주,『한국풍수이론의 정립』, 관음출판사, 2002,
11. 張聖浚,「風水地理의 局面이 갖는 建築的 想像力에 관한 考察」, 대한건축학회지, 22권, 85호, 1978.
12. 裵常列,「山陵議狀의 風水思想 硏究」,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04.
13. 崔昌祚,「風水說 坐向論上의 吉凶判斷에 관한 緯學的 解釋」, 地理學, 제26호, 1982.
14. 박상구,「조선시대 서원건축 터잡기 및 건물재치의 풍수지리적 해석」,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2007.
15. 黎靖德, 허탁 이요성역,『朱子語類』, 도서출판 청계, 2000.
16. 이상규, 「德川書院의 造營과 變遷에 關한 硏究」,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8.
17. 玄重英 朴贊龍, 「朝鮮時代 傳統住宅 風水의 坐向-良洞마을에 대한 事例 硏究」, 韓國庭園學會誌16(3), 1998.
18. 申欽,『象村集』, 한국고전종합DB.
19. 楊布生 彭定國,『中國書院與傳統文化』, 湖南 湖南敎育出版社, 1992.
20. 鄭崑壽, 韓國歷代文集叢書, 『栢谷先生文集, 西原鄭氏家塾記』, 경인문화사, 1973.
21. 한국사상사연구회,『조선 유학의 학파들』예문서원, 2004.
22. 중앙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아브, 『筆巖書院志』
23. 인터넷 사이트, 정통풍수지리학회 (www.poongsoojiri.co.kr)
24. 인터넷 사이트, 김두규 풍수이야기 (www. korea-fengshui.com)

접수(2010. 7. 28)
수정(1차: 2010. 10. 6)
게재확정(2010. 10. 21)

A Study on the Layout for Korean Academics of Classical Learning with Fengshui Factors

Park, Jeong-Hae
(Doctor's course, Hanyang University)

Abstract

With the effect that the Yipsu-ryong(入首龍) of Ju-san(主山) influenced on the layout in the view of geomantic topography(形勢), how Ahn-san(案山) affected the layout plan of the Korean academics of classical learning(書院) is researched. And how the 『Jirisinbeob(地理新法)』 which had been written by Ho-sun-sin(胡舜申) was applied to the Korean academics of classical learning in the view of Li and Ch'i(理氣) is studied.

In Fengshui, the method to pick out a site and to confirm the direction for building construction was divided into two, one of them was 'the geomantic topography', which included 'Ju-san following type(主山順應形)', 'Ahn-san stressing type(案山重視形)' and 'Ju-san & Ahn-san complex type(主·案山混合形)'. And the other is the 'Rule of direction(向法)'.

The Korean academics of classical learning was applied by the geomantic topography of Fengshui for its layout and direction, regardless of political, regional and period factors. So when the Sa-rim(士林) needed to set direction for the Korean academics of classical learning, the ground that was appropriate to the geomantic topography of Fengshui was selected. Therefore, the Sa-rim who was abused in Neo-Confucianism had a mind of stressing geomantic topography of Fengshui and they applied it positively for building construction.

Keywords : The Korean academics of classical learning(書院), Fengshui, Layout(坐向), Jirisinbeob(地理新法), Moonpilbong(文筆峰)